

2018년 11월 21일, 제주시 오등동 정윤승 씨 댁, 이현정 조사.

정윤승(남, 1935년생, 제주시 오등동)

- 제주시 오등동 출생, 제주4·3사건 때 시내로 피난을 가서 약 5년 간 살다가, 19세에 입대하였다. 군 제대 후 고향으로 돌아와 지금까지 거주하고 있다.

• 줄거리: 제주시 오등동에는 남학당이 있었는데, 오드승방 정씨의 부친의 존함은 정석규로 남학당의 훈장이었다. 오드승방은 시집을 가면서 자식 교육을 위해 부친이 쓴 회초리를 가져갔다. 오드승방은 김상엽, 김영집, 김영업 삼형제를 낳고 자식 교육에 심혈을 기울여서, 세 아들 모두가 동방급제를 하였다. 남학당은 오드승방의 부친이 죽은 뒤로 훈장을 이어갈 사람이 없어 방치되었다가, 제주시 광양으로 이전하였다. 오드승방의 큰아버지는 죽성마을에, 작은아버지는 오등동에 내려와 살면서 오등동 전체에는 정씨 가문이 번영하여 오등동을 정촌이라고도 부른다.

[조사자] 남학당이 잊었구나예.

[제보자] 남학당 말을 허게 뒷민, 남학당은 그 오등동 오드승방이에 입도조 오대, 에 오대……. 현 팔대 손 뒷지이? 그러니까 오드승방에 아부진데 이 저 석규라고 그래 석규이. 이름이 정석규라고 석 제허고 규 제데, 그 할아버지가 딸이 화북에 씨집 가가지고 결혼, 시집갈 적에 궤 속에 궤에. 그 희제 관제 그 굴림서원 허던 할아버지 허던 회초리를 갖고 갔다고 그래, 회초리를. 그래서 동네방네 그 소문이 낫는데.

“누구 오드승방 시집 가면서 궤 속에 회초릴 갖고 왔다.”

는 것을 동네 사름이나 농담식으로 얘길 헷거든. 거난 자식을 가르치기 우해서 할아버지가 쓴 회초릴 가져 왔다. 그래서 그 자식덜을 그 아부지앞이 혜영 공부시켜가지고 삼성제가 이 동방급제를 헷는데, 김○○, 김○○, 김○○.

이 과거 시험을 보레 들어갔는데 합격한 것이 발표된 거 바래보니까 삼 형제 가 다 합격을 헤엿거든. 그러니까

“이것은 예, 너무이 자세해가지고 안 됤다.”

헤가지고. 제일 마지막 동생은 제주 향교에 빙으로 헤가지고 빙훈장으로 이젠

앗지고 형제를 이젠 과거 입제를 헤엿거든. 그런데 또 한 사름 그 동생을 빙으로 헤 놓고 한 사름을 선정햇는데, 그것도 역시 오드승방 아덜이라. 그래서 오드승방 그 석제 규제 하르버지 외손자 삼남이 동방급제를 헤엿다 그래.

오등동에는 그렇게 훌륭한 사름이 컸었고. 또 오드승방 할아버지가 죽어부니까, 이제는 그 당시에는 남학당 이제 남학당을 이제 그 서재터 대리 남학당을 지었는데. 게단 오드승방 하르방이 돌아가셔부니까, 남학당 혈 선생이 없어가지고 교육을 시킬 수 엊어가지고 비바람에 만딱 새고 뭐하니까. 그 집을 뜯어다가 지금 광양에 가서 향교집을 지어낫어, 지엇고.

이 그 오드승방에 큰아버지에 큰아들이 죽성에 살게 데고 족은아들이 오등동으로 내려와서 살게 데엇거든. 그래서 그것이 다 추사(追賜)로 그 명칭을 받게 데엇고. 에 그렇게 헤가지고 오등동 정씨가 그렇게 해서 벌겨젓지.

[조사자] 오등동에 게믄 아직도 정씨 많이 삽니까?

[제보자] 4·3수건 전에는 오등동은 정촌이라고 헷어. 정씨만 살던 정촌이다. 경헌데이 불과 다섯, 이 멧 사름이 엊어낫어.

- 핵심어: 남학당, 오드승방, 궤, 회초리, 삼성제(삼형제), 동방급제, 오등동, 정촌(정씨 집성촌), 굴림서원, 아덜(아들), 향교, 하르방(할아버지), 정씨